



배달앱 시장
자율상생 한계
정부 개입 요구
L1

올리브영·실리콘투
글로벌 확장전략
'2인 2색'
L2



햇살 머금은 소나무 숲길, 초록의 여유로 일상 비추다

아파트의 미학(美學)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송내역에서 7분가량 걸으면 오래된 상가와 주택 너머로 새 아파트가 나타난다. 단지 바깥 울타리에는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경사진 길을 따라가자 대형 문주가 방문객을 맞는다. 지난 7일 입주를 시작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이다. 입주지원센터를 오가는 사람들과 분주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입주 초기의 활기가 느껴졌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들어섰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12개 동, 전용면적 49~109㎡, 총 1045가구 규모다. 단지명 '센트비엔'은 중심을 뜻하는 '센터(Center)'와 훌륭함을 의미하는 '비엔(Bien)'을 결합한 말이다.

단지는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 사이에 위치한다. 경인로와 송내대로를 이용하면 부천 시내와 서울-인천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학교와 공원, 생활 상권도 갖췄다. 솔안초와 송내초, 부천서초 등이 인근에 있고 송내도서관과 솔안공원도 이용할 수 있다.

주변 원도심의 정비도 추진되고 있다. 부천시는 '2026년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대상지로 송내역 솔안말어린이공원 일원 등을 선정했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원도심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는 방식이다.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의 조경 면적은 전체 대지의 34.42%다. 남향 위주로 동을 배치하고 건물 사이로 시야가 트이도록 설계했다. 지상에는 녹지와 보행로를 두고 휴게공간을 연결해 공원처럼 거닐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설계도 특화했다.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1등급을 받은 단지로, 2024년 상반기 환경주거문화대상에서는 웰빙 아파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 조경 공간의 넉넉한 규모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1000가구 이상 단지라는 점을 감안해도 놀이터와 티하우스, 수경시설을 큼직하게 조성했다. 공원처럼 꾸민 공간도 여럿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무와 꽃을 둘러보거나 쉬어갈 자리가 나타난다.

단지는 각각 6개 동으로 이뤄진 1·2단지로 나뉜다. 송내역에서 가까운 쪽에 101~106동의 1단지 뒤로 201~206동의 2단지가 이어진다. 두 단지 사이에는 중앙 어린이공원이 있다.

문주를 지나면 양쪽에 마련된 정원이 먼저 보인다. 오른쪽 난간 너머로는 높이 솟은 소나무와 키 작은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다. 나무 사이로 벤치와 넓고 평평한 돌이 보인다. 주변에는 작은 돌과 풀을 배치해 아가자기하게 꾸몄다.

단지를 방문한 이날은 9월의 햇살이 유난히 밝았다. 눈부신 별



1 소나무와 작은 식물들로 둘러싸인 단지 내 티하우스. 2 잔디와 낮은 수목, 조경석이 어우러진 정원. 3 햇빛이 가득 내리쬐는 쉼터. 4 송내동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쉼터. /성채리 기자

부천 송내·중동역 역세권 1045가구 단지
조경면적 34%… 채광·공간 개방감 높여
녹색건축·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 설계'

녹지·보행로 배치… 쉬어갈 휴게공간 연결
송내동 지명에 걸맞는 소나무 배치 돋보여
햇살 받으며 자연 감상하는 통창 티하우스

사이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늦여름과 초가을이 함께 느껴졌다. 잔디와 나뭇잎, 곳곳에 핀 꽃들도 빛을 받아 선명했다. 조명을 켜 놓은 듯 환한 녹지가 단지 전체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나무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것은 그림자다. 햇살을 받은 가지와 잎의 윤곽이 회색 벽과 바닥에 또렷하게 드리웠다. 나무 옆으로 그림자까지 펼쳐지니 녹지가 한층 풍성해 보였다. 휴게공간에는 나무와 지붕이 그늘을 만들었다. 밝은 햇살을 즐기며 걷다도 잠시 별을 피해 앉아갈 수 있는 자리다.

송내라는 지명은 소나무에 둘러싸인 안동네라는 뜻의 '솔안말'에서 유래한다. 이를 증명하듯 단지 곳곳에서 소나무가 눈에 띈다. 나무 줄기와 가지 사이로 쉼터가 보일 듯 말 듯 이어진다. 살짝 가려진 안쪽 풍경이 궁금해져 걸음을 옮기게 된다.

모양이 제각각인 돌을 이어 간 산책로를 따라가면 파란색 대형 물놀이터가 나타난다. 바닥의 파란색이 워낙 선명해 이미 물을 채워놓은 듯하다. 건물 사이로 열린 새파란 하늘과 이어지며 단지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놀이터 옆에는 통유리로 둘러싼 티하우스가 있다. 실내부터 바깥 테라스까지 흰색 테이블과 의자로 통일했다. 색과 장식을 덜어내 깔끔한 분위기를 낸다. 파란 놀이터와 나란히 놓인 쉼터는 리조트의 수영장 옆 휴게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부모들이 실내에 앉아 아이들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구조다.

1단지에서는 천장을 높게 낸 동 출입구도 눈에 띈다. 출입구 안쪽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널찍한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앉으면 열린 입구 너머로 나무와 돌길이 보인다. 집을 드나드는 길도 여유가 있어 답답하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동 주변에는 돌로 꾸민 정원이 많다. 검은 자갈 위에 크고 작은 조경석을 놓고, 그 사이에 나무와 꽃을 심었다. 밝은 회색 판석을 띄엄띄엄 간 공간도 있다. 짙은 바닥 위로 돌의 모양과 풀빛이 한층 또렷하게 드러난다.

2단지는 2층 높이로 올라가면 주거동과 조경공간이 펼쳐진다. 가장자리 쉼터에서는 유리 난간 너머로 주변 동네가 내려다보인다. 소나무와 키 작은 수목 사이로 파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쉴 수 있다.

1단지 끝자락에서는 커다란 소나무가 시선을 붙잡는다. 굵은 줄기가 한쪽으로 굽어 자라고, 그 위로 가지가 넓게 펼쳐졌다. 아래에는 낮은 수목과 조경석을 두고 벤치도 놓았다.

송내동 길가 벽면에는 '교통 좋고 복숭아향 그윽한 살기 좋은 송내1동'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과거 복숭아 과수원이 들어섰던 흔적이 동네를 소개하는 글귀에 남아 있다.

소나무에 둘러싸인 마을이라는 옛 이름부터 복숭아향을 내세운 문구까지, 송내의 이야기는 자연과 특히 가깝다. 단지를 나서는 길에도 햇살 아래 선명했던 나무와 풀빛이 잔상으로 남는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 뉴욕전 선발…LAFC 6경기 무승 탈출
정조준
▲이강인 AT마드리드 데뷔골…라리가 '8월의 골' 선정
/사진 뉴시스

▲'日 야구 레전드' 장훈, 9일 도쿄서 별세…향년 86세
▲방탄소년단 '스웸', 美 빌보드 여름 결산 '글로벌' 2위

▲“지난 1년 간 공연 암표 신고 1위는 방탄소년단 ‘아리랑’”
▲문학으로 전국 물든다…‘대한민국 문학축제’ 11일 개막